

전심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Honoring God through wholehearted worship)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에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십사만 사천명이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거문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십사만 사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1-5)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환상의 의미를 억지로 끌어내려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푸는 한 가지 열쇠는 이 환상이 바로 교회를 위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처음 세 장은 특별히 흠어져 있는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를 향한 칭찬과 격려,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까지 일곱 교회를 향한 환상이 끝난 후 연결되는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4:1)

일곱 교회를 향한 환상을 보던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 이십 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 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4:2-4)

이제 요한은 성령에 감동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하늘의 보좌 앞에서 펼쳐지는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상상력입니다.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세계를 2016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 붙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눈을 들어 한 번도 본적이 없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저 하늘을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이 본 것이고, 또 요한의 눈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영적 세계에 대한 상상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서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또 다른 환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가 눈을 들어 바라본 곳에는 시온 산이 있고, 우뚝 솟은 그 산 정상에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그 어린 양의 곁에는 십사만 사천명의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주목합니다.

그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그 이마에 무엇인가 써 있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십사만 사천명의 이마에 모두 똑 같은 글자가 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시온 산보다 더 높은 하늘에서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큰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요한은 시온 산 위의 어린 양과 십사만 사천명에게서 눈을 들어 이제는 하늘을 바라 봅니다.

그곳에 한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는 하나님, 즉 어린 양의 아버지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큰 물이 흐르는 소리, 천둥 같은 우렁찬 노래가 바로 이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부르는 찬송이라는 사실을 요한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온 산 위의 십사만 사천명이 온 세상을 압도하는 그 놀라운 찬송을 함께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노래는 이 땅 가운데 오직 그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배워서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성령은 요한에게 천상의 보좌 곁에 있는 이십사 장로들, 네 생물과 함께 우주적인 찬송을 하고 있는, 십사만 사천 명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줍니다.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사고 방식에 의하면 **전쟁에 나간 군인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 그녀가 임신하게 되자, 우리야를 불러 잔치를 베풀고 술에 취하게 해서 그의 집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집에 간 우리야가 아내와 동침하면,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야는 이틀이나 계속해서 집으로 가기를 거절합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이 지켜야 하는 여자를 멀리하는 정절의 규정을 신실하게 지킨 것입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십사만 사천 명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들이 전쟁 중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영적 군대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정절의 명령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대장 되신 어린 양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지휘관인 어린 양 예수만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던 성도들입니다.

물론 십사만 사천 명이라는 숫자 역시 상징으로, 온 세상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십사만 사천 명 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숫자가 상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 숫자를 이용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는 신천지에 들어온 교인의 숫자가 십사만 사천에 이르면 진정한 새 하늘과 새 땅, 즉 신천지가 시작된다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말도 안되는 무식한 해석을 하고, 그런 해석을 무분별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징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자 그대로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장면을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 머리 속에 그려 봅시다.

요한이 바라 본 이 땅에서의 장면은 시온 산 위에 어린양과 그 주위에 모인 구원받은 십사만 사천명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천둥 소리와도 같은 우렁찬 찬양의 소리를 따라서 바라 본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서서 놀랍게 큰 소리로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들은 이 땅의 십사만 사천은 즉시 그 찬양을 배워, 함께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본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우주적인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 장면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도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이 땅의 성도들과 지금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보좌 곁에 있는 네 생물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 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계 4:6-8)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아 보이는 네 생물에게는 각각 여섯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의 안과 주변에 눈이 가득했습니다.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생물들에게 눈이 가득한 것은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졸지도, 자지도 않고, 완전히 깨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시라”

이와 같은 노래를 통해 그 네 생물들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 즉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십사 장로들도 이 네 생물과 함께 경배하고, 그들이 썼던 금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계 4:10)

그리고 그들의 주변에는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모여 서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흰 옷 입은 무리의 찬양에 또 다시 그 곁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화답합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계 7:12)

요한의 환상은 바로 이 땅의 성도들과 이미 천상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성도들이 온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편지를 읽는 교회들이 지금 바로 그 우주적인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음을 깨닫기를 바라며 이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속해 있는 지상의 교회와, 우리 이전과 이후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는 영적인 천상의 교회가 모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곳 피츠버그의 한인 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동시에 저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 곁에 함께 한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목소리, 동일한 노래, 동일한 가사로 하나님께 크게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시라”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은 이처럼 거룩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온 우주가 함께 숨죽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라고 목소리 높여 찬양할 때 온 우주가 한 목소리로 폭포수와 같은 소리, 천둥과 같은 소리로 하나님을 이 땅에서, 천상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배가 이와 같은 놀라운 행위라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이처럼 온 우주가 찬양할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와 있습니까?

천사와 앞서 부름받은 성도들과 지금 이 땅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거룩한 자리에 마음의 준비 없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입술로만 찬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심하게 설교를 듣지는 않습니까? 이번 주도 예배 드렸으니 되었다는 자기 만족만 안고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갈 6:7)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행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Honoring God through wholehearted worship, 전심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지난 주에 이어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S.H.I.N.E 비전의 두 번째 비전입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한인 디아스포라로 피츠버그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온 우주가 우리와 함께 밤낮 쉬지 않고, 좌우에 눈이 가득한 날개를 펼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적인 예배가 바로 이 피츠버그의 한인 디아스포라인 우리 교회가 온 마음으로 함께 올려드려야 할 거룩한 행위입니다.

2백 3십 6만명에 달하는 피츠버그의 인구에 비하면, 우리 교회 성도의 수는 어찌면 한 줌 밖에 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 부름받은 모든 이스라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우리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의 상상력을 이용해 바로 이 놀라운 광경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행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표할 수 있는 최상의 경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이 말씀에 비추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 가운데 울려 퍼졌던 놀라운 찬양과 경배와 비교하며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온 우주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마치 많은 물이 흐르는 것 같은 우렁찬 함성, 천둥같은 뜨거운 찬양과 비교할 때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초라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도, 온 우주가 함께 드리는 그 천상의 예배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초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완전하고, 부족하기만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받으시기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작곡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우리의 불완전한 예배를 천상의 예배, 완전한 예배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최상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심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계 3:12)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분명한 이 승리!

2016년, 새해에는 전심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게되는 이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ell Bible Study

1. 당신의 태몽은 무엇입니까? 혹시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태몽을 꾸셨습니까?

2.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눈 태몽과 요한이 본 환상은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3. 요한계시록 14:1절을 읽고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이마에 써 있는 글자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어린 양이 서 있는 시온 산 보다 더 높은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계 14:2-3)

이러한 천상의 찬송을 배워 부를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이며, 이 땅에서 오직 그들만 이 노래를 배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 14:4-5)

5. 요한계시록 4:10과 7:12절을 읽어보세요. 이 모든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_____입니다.

천상 위 하늘 보좌에서는 이십사 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온산 정상에서 어린 양과 거룩한 성도들이 그 찬양을 배워 함께 노래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찬양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이와 같은 천상의 예배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와 같은 우주적인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실감하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예배 (주일 예배, 가정 예배 등)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사실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 갈라디아서 6:7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오늘 설교에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행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나의 예배에 대한 자세를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온 우주가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면 나의 예배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7.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12)

이 약속을 소유한 우리는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셀원들과 나누어 봅시다.